

PROJECTS

World CLC Day 2021:

성령안에서 기뻐합니다. 모여서 식별하고 행동합니다!

Nº 175, December 2020

Original: English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루카 1,38.

내년에 우리는 성 이냐시오의 영적인 삶으로의 회심 500 주년을 기념합니다. 예수회와 다수의 이냐시안 가족들은 이 시기를 이냐시안의 해 -“이냐시오 500”(2021년 5월 20 - 2022년 7월 31)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마리아처럼,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존재를 흔드는 성령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냐시오 성인이 부상에서 회복중이던 1년 동안 이러한 회심을 경험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거나 여러 단계의 락다운을 경험한지 거의 1년이 되어갑니다. 이냐시안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성령께서 어떻게 지속적인 은총의 선물을 가져오는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총들 가운데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및 공동식별에 대해 특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삶속에서 하느님의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 애쓸 때, 식별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특히 **공동식별** 과정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식별 과정은 우리 CLC 회원들이 많은 다른 이들과 협력해서 삶이 매우 취약하거나 소외된 미개척지 영역에서 사랑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길 때 도움을 줍니다

I. 식별 문화의 증진

부에노스 아이레스 세계 총회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는 이냐시오 영성에 기반을 둔 우리의 공동식별 경험이 교회와 세상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삶에는 식별이 필요합니다. 식별하는 것을 격려하면 일반적인 관계, 가족, 사회생활, 조직들, 교회, 생태환경, 경제, 교육, 정치, 등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인 선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성령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든 주목할 문서들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 *찬미 받으소서 Laudato Si'*,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Gaudete et exultate*,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Christus vivit*, *사랑하는 아마존 Querida Amazonia and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에서 식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다양한 사회현실, 특히 삶이 불안정한 곳에서 공동식별 훈련을 나누고 지원하는 것은 CLC 사명 가운데 가장 좋은 봉사의 하나입니다.

이냐시오 영성과 훈련 방법의 토대는 500년 전 팜플로나 전투 이후 이냐시오가 부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입니다. 각자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심화시키는 근원인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경험, 내적 움직임, 이해 그리고 도의적 의사결정등을 통합할 수 있는 성찰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안에서도 우리의 식별과 회심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전투와 회복과정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성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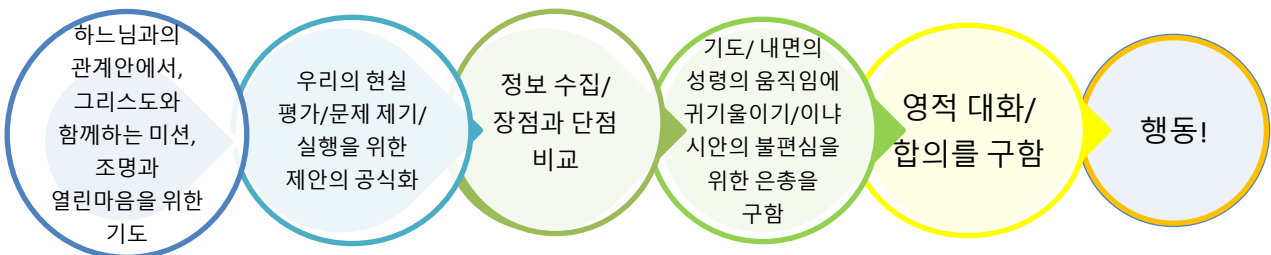
1.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동체원들을 위한 영신수련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나요?
2. 여러분의 공동체가 시대의 징표를 읽게 되면 식별과 회심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II. 공동식별

세계 CLC EA 이신 Arturo Sosa 예수회 총장 신부님께서서는 모든 예수회원들에게 공동식별에 관한 서신을 썼습니다[2017년 9월 27일]. 그 서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공동식별의 몇 가지 속성에 주목했습니다: [a] 문제를 잘 선택할 것, [b] 누가 왜 공동식별에 참여해야하며, [c] 내적 자유, [d] 마음과 가슴의 일치, [e]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f] 공동 기도, [g] 영적 대화, [h] 의식성찰의 체계적 수련과 [i] 어떻게 최종결정을 할 것인지 정하며 우리의 모든 신뢰를 하느님께 둘 것

행동을 위한 공동식별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 또는 부당함을 느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회원들이 제안하거나, 회원들 사이에서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가이드나 코디네이터가 촉구하거나, 그룹 외부로부터의 요청이 있거나, 단체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멤버들에게 영감을 주는 경험이 있었거나, 단체가 너무 고립적이거나 내향적이어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아래 그림은 공동식별 요소들의 “과정 전반에 걸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 요소들은 정확한 순서를 따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가능한 단계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과정의 일반적인 개요를 보여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할 뿐이며 전 세계 공동체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공동식별 과정의 경험, 깊이, 세부 사항, 뉘앙스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III.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기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은 공동체안에서 식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공동체마다 풍부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명하고 고무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식별 경험을 배우고 공유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세계 총회에서 우리 회원들은 공동식별 과정에 참여했으며 이 천막(공동식별 과정)을 각자의 공동체 또한 하느님과 공동체적 만남을 위한 곳들로 옮겨가 식별의 은총을 함께 찾도록 격려받았습니다. 여러 대륙의 많은 국가에 있는 공동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이 식별과정을 그들의 고유한 현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별의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나누었고 이를 통해 공동식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의 여러 지역의 우리 공동체가 행한 공동식별 과정과 식별 프로젝트의 간단한 예시들입니다.

1) 본당 프로젝트. 한 본당의 새 CLC 그룹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회원들 각자는 무언가를 함께 해야 한다는 강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인해 공동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단절과 고립에 대해 우려를 표현합니다. 가이드는 이들을 공동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과정에 참여하게 했는데, 그들은 함께 두 세번의 모임을 가지며 같이 기도하고,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정보를 모으고, 제안서들을 작성하고, 찬반의 의견을 나누고, 영적 대화를 통해 이 대유행병 기간 동안 고립을 경험하고 있는 본당 공동체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간단한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합의점을 찾게 했습니다.

2) 한 공동체는 노숙자들과 일할 때 그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동식별을 했습니다.

어느 한 CLC 는 그들의 도시내에 떠돌아다니는 노숙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함께 식별을하여 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후, CLC 회원들은 노숙자들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숙자 자신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그룹 미팅들을 조직하여 여러명의 젊은 회원들을 초대해서 이들이 개인차원과 지역사회 차원에서 노숙자들 돕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성찰하고 식별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노숙자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동반하며 그들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들은 성령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며, 공동체로서의 소명과 여러 차례의 영적 대화에 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소명이나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식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 3) **국가 공동체 차원의 이민자 사목.** 어느 CLC 국가 공동체는 CLC의 평신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교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함께 식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육(양성)프로그램을 통해 평신도들의 영성을 쇄신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가난한 지역에 사도직 센터를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년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들이 임무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 필요성(시대의 징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식별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마음을 연 결과로 사도직 센터는 이민여성과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목표로 설립될 예정이었지만 다문화 가족센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수의 새 회원들이 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의 규모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을 때, 어떤 단계에서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원들 각자는 센터에 대해 다른 의견과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이드의 도움으로 그들은 함께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God's love in action)을 목상하는 식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 식별이 쉬운 과정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이기에 때로는 부정적인 느낌 또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본으로 돌아가 성찰하고 다시 함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인내하고 침묵할수록,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가 더 쉬워집니다. 더우기 DSSE (식별, 파견, 지원, 평가) 과정은 공동식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 4) **분쟁지역의 씨앗.** 양극화와 분쟁이 심한 지역에 사는 CLC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지역의 다른 CLC 회원들을 초대하여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식별합니다. 여러번의 기도, 평가, 제안, 영적 대화 모임 후 그들은 화해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지역 모든 분파의 사람들을 초대해 예수회 방식을 적용해 듣고, 나누고, 공동의 원칙을 식별합니다. 사람들이 대화하고 그들의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보살필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더 공개적으로 해서 형제/자매애와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방법의 원칙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전쟁터에 희망과 형제/자매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것이 식별의 문화(culture of discernment)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5) **전 세계 환경운동에 참여.** 한 국제 생태 환경운동 단체가 CLC 회원들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상임위원회(Executive Council)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식별합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될지, CLC의 우선가치 및 이전 회합에서의 임무들과 어떻게 잘 부응할 것인지, 어떻게 회원들이 참여할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이 제안을 평가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운동이며, Lebanon 총회에서 표현되었던 생태환경 개척을 위한 활동과 일치하고, 긴박한 전 지구적 울부짖음에

응답할 필요성을 알리는 교황님의 메시지 *찬미받으소서 Laudato Si'* 와도 일치한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예수회와 이냐시안 네트워크의 주도하에 Facebook 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UN 에 참여하며 이 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IV. 공동식별의 텐트 치기

출애굽기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은 사막에 하느님과의 만남의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총회에서는 인상적인 영적 경험이 라틴 아메리카 주변 가난한 지역 가운데에 설치한 커다랗고 하얀 텐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텐트 안에서 우리는 CLC 의 주요 역량은 식별을 시작하고 이끄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CLC 회원으로써, 우리는 그 텐트(하느님을 찾는 성스러운 장소)를 가난의 현장으로 옮길 것을 요청받습니다. 하느님은 사막, 산, 계곡, 도시, 미개척지역 등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는 어느 곳에서나 각자의 현실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처입은 사람을 돌보아주었던 사마리아인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과 가난을 지나치지 말라는 분명한 촉구입니다. 2013 년 레바논 총회 이후 우리는 가족, 청년, 생태환경, 가난 등의 미개척지에 특별히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공동식별 과정은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임무수행 능력은 다양하게 발휘됩니다. 만남과 식별의 텐트는 모든 이벤트,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World Executive Council 세계 상임위원회는 성서적 아이디어를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공동 만남을 위해 텐트를 설치하고 식별의 은사를 함께 찾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성찰하기

1. 우리의 현실에서 공동식별을 촉진하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어디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텐트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2. 우리 공동체 삶의 어떤 요소가 우리가 공동식별을 수행하는데 돕거나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행하고 있는 공동식별 실천에 대해 어떻게 나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식별의 텐트를 짓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냐시오 영성의 참 의미에 대해 더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 천박함, 사회적인 압력 그리고 판단이 가득한 우리 사회 안에서 식별의 요구를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것을 나누는 데 열정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기쁨, 일치, 평화, 사랑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들에 대한 열정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모두 함께 기뻐하길 원합니다! 마리아와 이냐시오처럼 우리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화하고 나누고 전진합시다!

초대합니다!

이야기 플랫폼입니다!

- 모든 전국, 지역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공동식별 이야기를 나누어주십시오! 나눔으로 식별을 실행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서로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 exsec@cvx-clc.net 로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이야기 플랫폼입니다!

- 양성팀과 지역 팀에게, 지역 그룹내에서, 그룹간에 그리고 그 너머에서 식별 문화를 심화하고 공동식별의 실행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과 과정들을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야기 플랫폼입니다!

- 우리의 기쁨을 축하하고 나누기 위해 예술품과 아름다움은 중요합니다!
- 사진, 이미지, 작품, 비디오, 메시지등을 2021년 3월25일 세계 CLC의 날에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모든 공동체와 회원들을 초청합니다.
- 여러분 공동체 사진이나 CLC와 이냐시오 영성을 통해 받은 은총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현을 올려도 좋습니다.
- 소셜미디어(인스타그램: @cvx-clc; 트위터: @CVX_CLC; Facebook: CVX-CLC)에 #WeAreCLC, #SomosCVX, #NousSommesCVX #Ignatian Family 등의 해쉬태그를 사용하십시오.

Ann Marie BRENNAN Daphne HO José DE PABLO SJ Fernando VIDAL
Catherine WAIYAKI Najat SAYEGH Denis DOBBELSTEIN
Diego PEREIRA Manuel MARTÍNEZ

Rome, 8 December 2020

Solemnit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the Virgin Mary